

# 학교폭력 예방 종합책 수립

### 도교육청, 청소년 전문가 11명 참여 TF팀 구성 운영 내년 1월 말 대책안 발표

전북도교육청이 학교폭력 예방과 위기학생 관리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테크스포스(TF)를 구성, 운영한다고 밝혔다. TF는 지난 6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1차례씩 회의를 통해 단위학교의 학교폭력 예방과 위기학생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 늦어도 내년 1월 말에는 종합대

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TF에는 도교육청의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관), 상담전문 장학사, 학교폭력 상담사, 학교장, 교사, 지원청 장학사, 학생인권교육센터 담당자 등 전문가 11명이 참여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학교폭력(성폭력) 예방과 대책, 위기관리에 관한 사업 검토 및 개선책 마련 ▲단위학교 학교폭력(성폭력) 예방활동과 사안처리 역량 강화 ▲위기상황 발생 시 학교-지원청-도교육청의 초기 대처 위기관리 능력 강화 ▲자살, 성폭력, 학업중단 등 고위기 학생 조기 파악 및 보호·관리·지원체계 강화 ▲2차 피해 방

지 및 가해·피해학생 보호대책과 교육력 회복 지원 ▲Wee프로젝트 운영 개선 및 위기개입 역량 강화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TF가 종합대책을 수립하면 시민·사회단체, 전북도의회, 학부모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종합대책에는 단위학교의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전반적인 내용을 담을 계획”이라며 “위기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과 지원이 이뤄지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 과학 기술 발전... 철학의 눈으로 보다

정광수 전북대 교수 세계·인간관 다룬 과학철학 서적 출간

뇌 과학과 빅데이터, 로봇기술 등의 발달로 인해 인간과 기계가 공존하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세계관과 인간관 등을 다룬 과학철학 서적이 출간됐다.

지난 2011년부터 매년 과학철학의 다양한 분야를 천착해 온 정광수 교수(전북대 과학학과)가 과학기술과 4차 산업혁명이 결맞은 세계관·인간관(한국학술정보)을 펴낸 것.

정 교수는 지난 2011년 '과학 기술과 문화예술'을 시작으로 2013년 '과학기술철학연구', 2014년 '과학적 실재론', 2015년 '모던 과학철학과 포스트모던 과학철학', 올해 '과학기술 윤리연구'와 이번에 출간된 책 등 과학철학의 다양한 담론을 제공하는 서적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지난 책에서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수반되는 여러 윤리적 문제를 다룬 정 교수는 이번 책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과학철학 분야에서 형이상학이 융합되어 다뤄지는 과학기술과 세계관·인간관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 나아가 포스트모던 시기의 그것들에 대조가 되는 '중세'의 세계관, 인간관과의 대조도 눈에 띈다.

정 교수는 "이 책은 과학기술과 인간, 과학의 철학과 문화, 과학기술의 철학적 이해 등이 시대의 첨단 교양을 일반인들에게 소개하는 기회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고교 의무급식 실시하라” 익산지역 52개 초·중·고교 학부모 대표로 구성된 익산고교의무급식운동본부가 7일 익산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 의무급식 실시를 촉구하고 있다.

## 전북, 국가직 지역인재 시험 7명 합격

### 내년 4월 부처별 수습직원 배치 후 근무 돌입

전북도교육청은 도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 7명이 2017년도 국가직 지역인재 9급 공무원에 최종 합격했다고 7일 밝혔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학생들은 행정(일반행정) 4명, 행정(회계) 1명, 보건(방역) 1명, 임업(산림자원) 1명이 합격했다.

합격자는 행정 직렬 최예빈(완산여고), 김이은(군산여상고), 공정원(전

주상업정보고), 김주원(전주상업정보고), 이다솔(전주상업정보고), 보건 직렬 이재립(학산고), 임업 직렬 정수인(한국한방고) 학생이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국가직 지역인재 9급 공무원 필기시험 합격 학생을 대상으로 실제 면접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면접 특강을 실시했다.

특히 자기기술서 작성과 인성질문, 입바질문, 연계질문, 시사질문 등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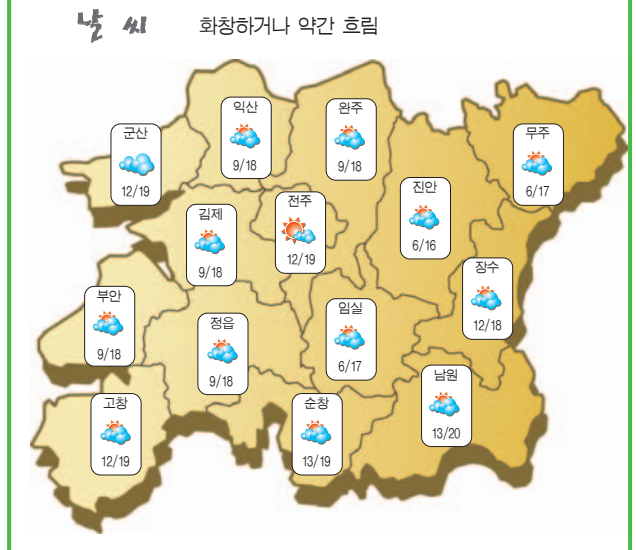
대비한 맞춤형 면접특강을 통하여 자신감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인사혁신처 국가직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은 학력이나 인성 능력과 실력 중심의 인재 등용과 공직 다양성 확보를 위해 2012년에 도입됐다.

합격자들은 이달 중 인사혁신처에 수습직원으로 등록 후, 내년 4월 정부 각 부처에 수습직원으로 배치돼 6개월간 근무하게 된다.

이후 임용심사위원회의 평가 심사(근무성적, 업무추진능력 등)를 거쳐 9급 국가공무원으로 정식 임용된다. /정해은 기자

11월 8일 수요일 해돋이 07:00 | 해질 17:30 달돋이 21:27 | 달질 11:58



## 세계 3대 인명사전에 이름 올려 '영예'

### 전북대 진상범 명예교수 학문적 업적 높이 평가받아

전북대학교 진상범 명예교수(독어독문학과·사진)가 세계 3대 인명사전으로 알려져 있는 '마르퀴즈 후즈 후(Marquis Who's Who)' 2018년판에 등재됐다. 진 교수는 한국비교문학의 독자적인 방법론을 개발하고, 한국문화 세계화를 위해 전북대 부설 국제문화교류연구소를 창립해 관련 분야 연구에 앞장서 왔다.

또한 동양과 서양의 예술과 문학을 비교해 연구한 6권의 저서와 외국어(영어 및 독어)로 된 6권의 공동저서를 출간하고 이 의도 30여 편의 비교



문학적 관점 연구 논문들을 국제학술지에 발표하는 등 학문적 업적도 높이 평가 받았다. 한편 진상범 명예교수는 서강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오스트리아 비엔나(Wien) 대학교 박사 수료, 고려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세계문화 비교연구 전문 국제 학술지 심사위원과 독일 아인슈타인 연구재단 심사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2016년 2월 정년퇴임했다. /정해은 기자

## 도교육청, 6~8급 전입공무원 공개모집

### 이달 하순경 면접 진행

전북도교육청이 도교육청으로 전입을 희망하는 교육행정 6급~8급 지원자를 공개모집한다.

도교육청은 창의성을 지닌 역동적인 인재를 발탁하기 위해 6급~8급 전입공무원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전보 제한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징계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는 사람은 제외한다. /정해은 기자

전북교육청은 이번 달 하순경 6급은 보고서 작성 평가와 면접, 7~8급은 서류평가와 면접 평가를 거쳐 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전북교육정책연구소(소장 전을석)도 교육정책 연구 개발, 책임 연구과제 수행, 교육연구 프로젝트 과제 자문 등을 담당할 6급 교육행정직 1명을 공개 선발한다. 응모자격은 교육학 등 사회과학분야의 석사 학위 이상자이며 보고서 평가와 면접평가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 14살 소녀들

어느 때와 같이 세 소녀는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

다. 건너편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 한 분.

할머니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것을 알고, 어딘가에서 휠체어를 빌려와 가까운 병원으로 모셨습니

다. 그리고 할머니의 가족이 올 때까지 모두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

다. 14살 소녀들의 기지와 사랑의 실천.

따뜻한 학생들이 있어 오늘도 전북교육은 웃을 수 있습니다.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_ 일곱 번째 이야기



미안합니다 잊지 않습니다. 지난 4월 전주 우림중 1학년 여학생 세 명(최수빈, 배윤서, 박민지)은 효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쓰러진 70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곧장 가까운 정형외과로 달려가 휠체어를 빌려다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고, 할머니의 가족들이 올 때까지 병실에서 곁을 지켰습니다. 이 따뜻한 선행은 5월 25일, 할머니께서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학교를 찾으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